

# 군산콩당보리, 지역대표축제 되다

공간·참여형 체험 늘려  
보리밭 연날리기 등  
방문객들 발길 잡아

군산콩당보리축제가 대성황을 이루며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콩당보리축제위원회(공동위원장 박정희, 김규창)의 주최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연휴 4일간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진 제13회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축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한 단계 성장한 축제로 평가받았다.

이번 축제는 군산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보리밭 사잇길을 걸으며'라는 주제로 진행돼 공간과 참여형 체험은 늘리고 추억은 키우는 축제의 의도대로 방문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다.

보리밭의 향수와 추억을 달래주는 보리밭 연날리기, 교복체험, 보물찾기, 닭잡기 행사가 연일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았고 콩당보리가수왕 선발대회, 인기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또 보리개떡, 보리아이스크림, 보리인절미, 보리비누 등 새로운 보리상품과 먹거리 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리축제다운 콩당보리 비빔밥, 보



제13회 군산콩당보리축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연휴 4일간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국수 등 웰빙 식단을 제공해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김규창 공동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군산콩당보리축제는 군산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그 경쟁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나

아가 축제가 구심력이 되어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보고, 만지고, 느끼고, 관찰하는 체험활동과 놀이공간과 공연을 늘려 어린이와 시

민 모두가 행복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축제를 진행하면서 축제장 공간구성 등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제공

익산 폴리텍, 서동축제서 '이니셜 팔찌 만들기' 운영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익산금마서동공원에서 진행된 2018 익산서동축제에 참여해 문화체험관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익산서동축제 참여는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축제에 적극 참여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문화체험관은 축제 기간 동안 주얼리 디자인과 화과장 및 재학생들이 참여해 약 300여명의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이니셜 팔찌 만들기' 등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 모현동, 삼광요양원 어르신 위문공연

익산시 모현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및 주민자치위원 50여 명은 8일 삼광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삼광요양원 어르신들의 가슴에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나눴다.

이번 위문공연(프로그램 수강생 발

표회는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풍물교실 및 라인댄스, 하모니카, 기타교실 강사 및 수강생들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풍물교실의 사물놀이로 시작으로 필레꽃의 음악에 맞춘 멋진 춤사위와 하모니카의 '어머님 은혜', 기타교실

의 '내 나이가 어때서'의 합창으로 1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위문공연에 참여한 수강생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서 좋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월명공원 내 유아체험 숲 조성 운영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인 군산시는 월명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유아체험 숲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유아체험 숲 내 산책로에 비비추 외 18종 2,400본의 초화류를 식재해 계절마다 피는 꽃을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숲의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가꿔나가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월명공원 내 유아체험 숲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1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기존 편백나무 숲 내에 아이들이 피톤치드가 풍부한 삼림욕을 즐기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명공원 유아체험 숲을 시 어린이행복과에서 6월부터 진행하는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 운영을 위한 대상으로 활용해, 44개 기관의 어린이 2,000여명이 오감발달을 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어르신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군산대 보령효나눔복지센터, 독거노인 이웃사랑 실천

군산대학교 보령효나눔복지센터(관장 엄기욱)는 어버이주간을 맞이해 지역주민 및 독거노인 200명 등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산중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복지관이용 어르신들의 색소폰, 합창 등 공연이 어우러져 행사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어르신들로 구성된 센터의 금빛봉사가단도 행사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특식을 준비해 제공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시간도 가졌다.

보령효나눔복지센터의 엄기욱 교수는 "효나눔 실천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존경과 나눔의 모습



이 일상생활 속에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하수도 미정비구간 정비 총력

익산시, 10억원 투입 배수 불량 등 시민불편 최소화

익산시는 최근 읍면동의 배수 불량 및 침수지역 등 생활민원으로 인한 익산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비 약 10억 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관내 하수도 미정비구간 정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잦은 침수피해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질병 예방과 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올해 중 앙시당 외 70개소 하수도 정비 공사를 추진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추후에 배수불량에 대한 불편함을 수시점검 및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대비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질개선을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